

### 3>> "허위 사실 유포시 기숙사 강제퇴사?" 규정 논란



### 4>> 융합전공, 시도는 처음이 아니었다?



### 6>>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첫 강의



## 법인 "총장선출제 개선 논의하자" 이사회 산하 상설기구 발족 계획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지난 30일 총장선출제와 관련해 법인과 대학평의회 대표단이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대학평의회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법인은 "총장선출제를 논의할 상설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며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담에는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 직원노조 김종현 위원장,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희완(사회학 2014) 위원장,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김효형(일문어학 2011) 회장이 대학평의회 대표로 참석했으며 법인에서는 공영일 이사장, 조여원 상임이사, 서규훈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법인은 지난 2016년 대학평의회 연구특위에서 법인에 제안한 총장선출제 안을 계기로 총장선출제

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밝혔다. 서규훈 사무처장은 "대학에 위임했던 1년간의 총장선출제 연구 결과 초안을 3월 2일 이사회에 보고했으며, 4월 말에 있을 결산 이사회에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선출제에 대해 상설기구를 구성할 정도로 법인 역시 현행 총장선출제에 대한 고민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법인은 "상설기구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상설기구가 법인 이사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는 대학평의회 대표단의 우려도 있었다. 법인은 "총장선임은 이사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 역시 이사회 의 몫"이라며 구성원 대표의 상설기구 직접 참여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직원노조 김종현 위원장은 "총장선출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도 마련 과정에서도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총장선출제마저도 이사회에서 독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김효형 학생회장 또한 "총장의 발언과 방향성 등은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총장선출제에도 구성원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은 "상설기구와 구성원 대표자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한 소동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법인의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조인원 총장의 임기가 올해 11월 23일에 종료됨에 따라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은 "시기가 촉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총장선출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결국 현재 선출제도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법인은 "상설기구와 얘기를 해서 8월 이사회에 맞춰 가닥을 잡으면 시간은 충분히 보인다"며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대학평의회 대표단은 "대학평의회가 도출할 총장선출제 모델을 상설기구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면담은 법인이 총장선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은 "4월 3일 대학평의회에서 면담내용을 알리고, 합리적인 총장선출제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수 임용권, 법인 → 대학 전면 이관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경희학원이 법인 이사장의 교원 임용권을 우리학교 총장에게 전면 위임했다. 지난 3월 2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법인 정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임용 권리를 우리학교 총장에게 위임했다.

현행 사립학교 법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모두 13개로 임용을 구분하고 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우리학교 교원 임용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우리학교를 제외한 법인 산하 모든 교육기간의 교원 임용권은 기존 정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고등학교, 경희중학교 등 법인 산하 8개 교육기간 중 교원 임용권 모두가 학교장에게 위임된 곳은 우리학교가 유일하다.

### 법인, "교수 임용권 위임으로 '효율성' 갖출 필요 있어"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채용, 재임용, 면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으로 특정 사항만 위임 됐던 기존 임용 정관이 직위해제, 정직, 해임, 파면까지 포함해 모든 임용권을 위임하도록 확장됐다.

법인 정관 제37조(임용) 제3항 제1호의 변경을 통해 '경희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사립학교 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임용 권리를 함축한다. 현재 경희학원은 개정된 법인 정관을 교육부에 보고한 상태이다.

경희학원 측은 개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임용권 행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임용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임용권을 우리학교 안으로 통일해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인 이사회 특성상 신속한 소집

이 어려워 임용 전반에 대한 의결이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희학원 심의기획실 조병렬 회장은 "법인 이사회가 소집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취합해야 하는 등 단기간 내 이뤄지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위임 결정으로 임용 전반에 대한 의결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격이다"고 말했다.

### 교원징계위원회도 우리학교로 이관돼

또한 "교수-학생 사이에 성추행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위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행처럼 유지했을 경우, 징계의 속도가 더디지게 되고, 징계의 본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용권 전반이 우리학교 총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징계 여부와 양형을 의결하는 교원징계위원회도 법인에서 우리학교로 이관될 예정이다. 현재 교무과와 감사행정원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서울캠퍼스 교무과 정종천 계장은 "오는 4월 중 교원징계위원회 설치와 관련 규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이 완료되면 우리학교는 교원에 대한 '징계 제정권'과 '징계 의결권' 모두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우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정으로 법인 교원징계위원회가 의결하던 징계 절차가 우리학교 내에서 모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형법을 강요하는 안경욱(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소속이 이관됐다는 사실보단 향후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며 "소속 위원들이 학교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경대 학생회가 본관 앞에서 '부족한 공간 해결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석현 기자)

## "부족한 공간 문제 해결하라" ... 논의 급물살 예정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서울】정경대학 학생회가 지난 21일 부총장과 면담을 성사시켰다. 부총장은 소통 부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본부 주재로 학생대표와 미래혁신원 등이 참여한 공간조정회의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부총장실은 "협의 가능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 가능한 상황"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정경대학 학생회 강명규(행정학 2016) 회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있었기에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조속히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대학 학생회는 지난 22일 부족한 공간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 회장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SPACE21 공사 이후 잔여 공간 논의에 본부가 학생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대학본부가 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바 있다.

또한 "정경대학 강의실 활용률은 88.6%로 청운관보다 높다. 서울캠퍼스에서 가장 많은 2,700여 명이 소속된 단과대학이지만 사용가능

한 세미나실은 단 1개"라며 정경대학이 처한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과대학 3개 층, 한의과대학 3개 강의실을 요구하는 안까지 전달했지만 학생은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됐다"며 부총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경대학 학생회가 요구안으로 내 건 것은 ▲학생회장-부총장 직접 면담 ▲공간이 필요한 단과대학과 본부의 공간조정회의 개최였다. 이를 위해 정경대학 학생회는 '두꺼비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536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 결과 기자회견 하루 전 면담이 성사됨에 따라

기자회견은 학생들에게 공간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당부와 공간이 부족한 타 단과대의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김지현(영어통번역학 2015) 위원장은 "정경대 뿐만 아니라 문과대, 자율전공학과, 동아리도 심각한 공간 문제에 당면해있는 상황"이라며 "보여주기식의 논의가 아닌 실제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간조정회의는 4일 개최 될 예정이다.

###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 카카오톡 오픈 ID : 대학주보
-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 트위터 : @khunesws
-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전문가 칼럼

그는 왜 그녀의 책상을 먹고 싶어 했을까  
강인욱(사학과) 교수 >> 7면

